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남동구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 남동구가 17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2년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홈페이지 상징마크'를 부여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웹사이트에서 조사한 2002년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에서 남동구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동작구, 양천구와 함께



전문야서 고른 점수 ... 전국 3위

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각계에서 모인 200명의 평가단이 지난해 8~12월까지 5개월 동안 중앙행정 54개 기관, 지자체 248개 기관을 평가지표 기준에 의거 고객만족도(CSI), 전문성 중요도, 홈페이지 운영자 중요도를 조사·지수화해 평가결과(점수)에 가중치로 반영하고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과 내용의 다양성, 각종 자료, 민원처리, Q&A 등 신

속성 여부 등을 평가했다.

남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상호작용성에서 전체 2위, 접근성에서 전체 5위를 차지하는 등 전문야서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동작구 양천구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우수기관 홈페이지로 선정된 만큼 더욱더 신속하고 알찬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

전국매일

남동구, 동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 실시

남동구는 오는 2004년까지 관내 동사무소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해 나간다.

우선 지난 4월말부터 실시된 만수 1, 4, 6동 사무소와 구월 1, 3동사무소의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구월4동, 간석3동, 만수2동, 만수5동사무소의 담장을 허물 계획이다. 현재 개발, 이전계획 등이 있는 8개소의 동사무소는 제외되며 향후 개발사업이나 이전시 시행해 나간다.

구는 담장허물기사업과 병행해 허문 담장의 주변에 시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 수목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에게 쉼터기능의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친숙한 관공서 이미지와 녹지공간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남동구 자활 우수단체 선정

남동구가 2002년도 자활사업을 추진한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한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24일 열리는 전국자활연수대회에서 우수 지자체 지정서를 받게 된다.

남동구는 11개 평가지표중 자활기관과의 협의전달 체계, 단체장 관심도 및 지원실적, 복지간병사업 분야,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천시를 비롯한 21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중 하나로 선정됐다.와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

기호일보

인천시 살기 좋은 아파트 4곳 선정

만수 벽산아파트 "최우수"

올해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에 남동구 만수 벽산아파트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우수관리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 보급하기 위해 개최한 '2003 살기 좋은 아파트'에 남동구 만수벽산 아파트를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남동구 만수 벽산아파트(2천73가구, 2000년 준공) ▶우수=남구 관교성지아파트(420가구, 91년) ▶장려=계양구 두산·쌍용아파트(798가구, 97년) ▶특별상=계양구 효성5차 뉴서울아파트(648가구, 94년) 등이 각각 선정됐다.

한동식기자 · dshan@kholbo.co.kr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남동구 공정·투명·친절한 봉사행정 구현

인천시 남동구는 민원위주의 실질적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 추진해 나간다.

구에 따르면 민원편의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정·투명·친절한 봉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민원사무 간소화, 객관적인 행정처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

우선 복합민원과 불가·반려

민원사항에 대해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민간인 전문인력을 적극 참여시키고 고질 및 집단민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이해관계자, 지역대표 등을 함께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해결을 모색한다.

행정기관에서 확인·조회가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처리기간 단축과 처리절차 간소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인터넷 구민의 소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는 민원 친절봉사를 위해 외래감사를 초빙한 친절봉사교육과 보고, 듣고, 느껴 행동하는 친절분위기 조성을 실천해 왔다.

강경환기자 ghgang@sidaellbo.co.kr

인천시 최초 統長 주민투표

공정성·선진행정 호평 2명 선출

【인천】 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립동(동장 이기욱)에서는 도립 주공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 스스로가 공정성과 민주적 방식에 의한 주민투표를 채택하여 11월 9일자로 2명의 통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통장 후보자와 주민들의 관심 속에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유일하게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통장선출을 시행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선진행정을 선보였다. 주민투표의 절차가 다소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통장으로 선출

된 김청도(62세.남)씨와 정춘자(59세.여)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통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통장에 대한 역할 수행에 있어 책임감이 막중하여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헌신 봉사와 등 행정 수행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웃간의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 주민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던 통장 선출방식이 주민투표에 의한 임명방식으로 바뀌어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환기자 ghgang@sidaellbo.co.kr

전국매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출범

구민복지·지자체 재정확충 토대 마련 기대

지방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을 설립 9일 창립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지방자치 시대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행정수요와 구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공부분 생산성의 극대화·다원화와 지방재정의 자주성·효율성·안정성을 주요 마인드로 하고 있다.

구는 직접 운영해 오던 공공시설물의 관

리 등 주요 공익사업을 지방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양 민간기업의 경영·경쟁 원리에 의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의 강화로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관리 운영과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 소래포구해수공급시설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유료와 사업은 구 관리소관(20m이하

인 도로) 노상주차시설 19개소중 10개소를 운영하고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유료화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봉투대행판매 사업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한 판매로 한정하고 주문배달제를 병행해 주민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래포구해수공급시설 운영은 깨끗하게 정화된 해수를 업소별로 유료 공급함으로써 관광객은 물론 주민의 건강문제 해소와 소래포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만수기자 (kimms@jeonmae.co.kr)

시민일보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 세정평가 1위 선정

계양구·연수구 뒤이어

인천시 남동구가 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각 군·구가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중 우수사례를 발굴, 업무에 반영하고 타 기관에 보급전파 함으로써 세정업무 발전과 지속적인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마련했다. 또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

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세 과징 실적과 체납처분 실적, 결손처분 실적 등 지방세수 실적 분야를 면밀히 평가했다. 아울러 납세 편의시책,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과오납 환부, 과포 현실화 운영 등의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로 기관별 순위를 결정했는데 남동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우수기관에는 계양구가, 장려기관은 연수구와 부평구가 각각 선정됐으며 시상은 내달 31일 종무식에서 하는데 남동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1억원의 사업비를 부상으로 받게 된다.

남동구 세무관계자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구민들에게 편안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news.net

제13회 구민 생활체육대회 성료 경쟁·화합 축제 '한마당'

남동구는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제13회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제13회 남동구민의 날을 맞아 주민,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해 구민 최대의 체육행사로 경쟁과 화합이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식전 공개행사로 인하대 풍물놀이 시연과 9공수여단의

절도 있고 패기넘치는 특전사 특공무술, 경찰종합학교의 박진감 넘치는 악대퍼레이드를 선보여 참석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에 경찰종합학교의 악대를 선두로 각 동의 선수단과 동별 특색을 잘 나타내는 길놀이팀의 입장식이 진행됐다.

이어 윤태진 구청장의 대회사

와 지난 대회 우승팀인 구월3동의 선수대표가 선서를 통해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다.

이날 경기는 세발자전거 이어달리기, 에드벌론 굴리기, 지네발 릴레이, 남·녀 혼성계주, 씨름, 투호, 족구, 협동줄넘기 8종목과 박터트리기 등 5종목으로 치뤄져 주민간 결속력과 협동심을 발휘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와관련 윤구청장은 "오늘의 행사가 남동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강수기자)

경 도 일 보

소래포구 축제 대단원 막내려

시민 참여행사등 다채롭게 진행

남동구가 제3회 인천소래포구 축제를 지난 10일 시민들의 큰 호응속에 대단원 막을 내렸다.

구가 지난 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소래포구축제는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주제로 민·관이 하나돼 포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5개마당 36개의 행사가 주무대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공원등 포구지역 전반에 걸

쳐 진행돼 소래를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노래자랑, 망둥어낚시대회, 장어이어달리기, 전풍놀이체험등 시민 참여 행사가 구경은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고깃배와 포구 상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어제와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소래포구이즘마 선발대회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남동구, 저소득노인 '사랑의 돌보기' 전달식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대한 '사랑의 돌보기 안경 전달식'이 10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사무소 다용도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구월1동사무소가 만수5동 신태양안경원(원장 신재철)의 지원을 받아 구월1·2동 만 65세 이상 노인중 생계곤란자 122

명에 대해 시력 및 안구 질병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돌보기 안경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돌보기 안경전달식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관심해지기 쉬운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행사다.

/전명찬기자·chan@kyeongin.com

멀리 있어도 재난극복 한마음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매미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16일 인천지역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수해 위문품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직원 성금 모금을 시작한 것을 비롯 직접 직원과 수해복구 장비를 현지로 급파하는 등 수해 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남동구는 15일 자매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 직원 59명과 중장비로 구성된 재해복구지원반을 파견한데 이어 16일 남동구 의회와 자생단체 등 10개 단체 124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연수구는 17일 강원도 삼척시에 2박3일 일정으로 직원 35명과 방역차, 청소차 등 중장비 5대로 구성된 수재민지원반을 파견하고 쌀 20kg 100포와 라면 180박스 등 생필품을 수재민에게 전달기로 했다.

남구 공직협 소속 공무원 13명도 개인자격으로 이날 경남 마산으로 출발, 2박3일 동안 수해복구에 동참한다.

부평구는 18일 1박2일 동안 네트워크 자매도시인 경남 고성



전날 자매도시에 재해복구지원반을 파견한 남동구는 17일 남동구의회 등 10개 단체 124명을 강원도 정선군에 파견, 수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제공=남동구청〉

일선 區, 자매도시 긴급지원단 파견

위문품 전달·중장비 수해복구 활동

군에 공무원과 시민 등 2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평지부는 수해복구지원 활동은 물론 라면 100박스를 전달한다.

서구도 직원 성금 모금을 시

작으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서구체육대회 기간 동안 모금함을 설치, 수해복구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조태현·김청우·김주희기자〉

choth@incheontimes.com

남동구 수출 상담회 340만불 성과 거둬

인천시 남동구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340만불(약4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동구는 KOTRA 인천무역관과 함께 지난 20일 인천로얄호텔 영빈관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 총89건 2,199만불(약259억원)의 상담과 340만불(약42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판로 개척에 큰 성과를 얻었다.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터키, 쿠바 8개국 53개사의 해외바이어

들이 참가하여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류, 기계류, 기계부품, 컴퓨터 관련제품, 특수공구류, 자동차부품, 가정용품, 약품류, 보안장비 품목 등에 대해 수출상담을 하였다.

이번 결과는 월드컵 성공개최로 한층 높아진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나타난 성과로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타 지역의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인천=김종면기자 jmkim@kgmael.net

구인구직 만남의 날 '희망을'

고용안정 · 실업극복, 구직자 몰려

남동구는 16일 구청 지하 식당에서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사장에는 지난 9일까지 구인을 위해 참가 신청을 한 81개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자들로 행사장을 가득메워 어려운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구인업체로부터 인사담당자가 나와 구직자에 대해 면

접을 실시하고 즉석에서 채용하기도 했으며 이력서 제출과 2차 면접일정을 잡기도 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소자본 창업설명회, 고용보험 안내,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훈련제도 안내를 실시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구는 지난 4월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2백10여명이 취업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풍물패 흥겨운 농악놀이에 외국인일꾼들 어깨춤 들썩

남동공단 근로자 문화탐방

민속촌서 즐거운 하루 보내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 민속촌을 찾은 사람들중에는 유독 '튀는' 모습의 무리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인천시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제 1회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의 참가자들.

피부색이나 생김새는 조금씩 다른 이들이었지만, 신기한 장면과 풍물을 보고 들으면서 재미있어 하고 흥미를 느끼는 점은 '우리네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것은 풍물패의 흥겨운 농악놀이. 팽과리와 장구의 장단에 맞춰 머리에 달린 끈을 돌리며 회전하는 역동적인 상모돌리기 장면에는 탄성을 연발했다.

파키스탄 출신 아크바르(남·31)씨는 "한국의 장단이 이렇게 힘이 넘칠 줄은 몰랐는데 흥겨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며 매우 즐거워 했다.

이들은 타악기로 이뤄진 장단에 맞춰 즉석에서 '이국적인' 어깨춤을 선보였나 하면 하늘 높이로 치솟는 조선족의 널뛰기 공연에는 하나같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씩씩한 장면도 목격됐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출신 제플리(남·23)씨가 5월의 초여름 날씨에도 입국 당시 입고 들어온 파카차림으로 나타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입국 후 아직까지 한 번도 바깥바람을 쐬 보지 못했다"고 대답,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심'과 '벽'이 아직까지 견고함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한편 주최측은 참가자들중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힌두·이슬람권 출신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점심메뉴를 육류가 아닌 버섯전골로 정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9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7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82명이 참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영휘기자〉

yws@incheontimes.com

“깨끗한 천일염 맛보세요”

우리동네 자랑

해양생태공원 천일염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구인 소래포구와 맞닿아 있는 해양생태공원은 특이한 식생과 갯골, 갯벌, 대규모 갈대군락지 등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장기간 방치된 공유수면 23만여평과 폐염전 21만여평을 활용

해 지난 97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내년 완공을 앞둔 해양생태공원은 유치원 및 각급 학생 등 수

변 사람들로부터 서로 달라는 청탁이 들어올 만큼 생태공원만의 특산물로 자리를 잡았다.

일반 소금보다 염분함유 많고 청정도 높아 비매품 볼구 남동구청 기념품 등으로 인기

도권에서 매일 100여명 이상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과 해양생태계를 견학하며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생태공원내 자연학습장에서 생산한 100% 천일염은 주

지하 130m에서 깨끗하고 염도가 높은 해수를 끌어올려 만든 천일염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일반소금 1등급 기준보다 염분함유량이 많고 청정도는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염전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일반 판매는 되지 않지만 뛰어난 품질과 희소가치로 인해 자연학습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남동구청 기념품으로 시민들의 인기가 높다.

선조들의 생산방식 그대로 재현해 만들어진 생태공원 천일염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 600~700kg씩 생산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70~80톤.

2001년 1월부터 생태공원에서 생태지기로 근무중인 남동구청 신동수씨(34)는 “생태공원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100% 국내산으로 품질은 물론 맛도 국내 최상급”이라며 자랑에 여념이 없다.

〈김침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

현 대 일 보

사회소외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과 의료기관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훈훈한 화제를 낳고 있는 곳이 있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사무소는 10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광연병원(원장 박민하)과의

에 대해 통원 및 입원치료 시 의료비중 검사비, 입원실 사용료, 입원식대, 수시 건강상태 진료등 비급여(본인 부담액)부분에 대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은 결연대상 노인의 전출이나 사망 등에 의한 결원 발생시 20명 범위 내에서 추가로 결연대상자

독거노인 건강 지켜드려요

남동구, 의료기관과 결연맺고 혜택부여

자매결연식을 동사무소에서 갖고 결연을 맺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선사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서는 간석4동·광연병원과의 결연협정서 조인식과 결연대상자들간의 상견례를 가졌으며 결연 협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의 자매결연 노인 11명

를 추천하고 광연병원과의 결연을 맺어줄 수 있어 본 자매결연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독거노인과 의료기관 간의 자매결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의료비 부담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차강수 기자〉

전국 매일

“정보화교육 집에서 받으세요”

남동구는 온라인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5월 한달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후 발생하는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6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온라인 정보화 교육은 기존의 교육처럼 일정 장소에 모여 하는 교육을 탈피 인터넷이 설치된 장소면 어디에서나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

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목은

남동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오는 6월부터 구민대상 본격 시행

인터넷기초, 컴퓨터활용능력 등 14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대상은 남동구 전자우편 가입회원이며, 1개 과목당 100명씩 1기에 5~6개 과목을 운영해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넘어 연간 4,000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교육신청은 남동구청 온라인정보화교육장 홈페이지로 접속해(<http://cyberedu.namdong.incheon.kr>)회원가입후 로그인해 수강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학습진도율과 온라인 평가를 통해 50일간의 교육후 수료하게 되며 이수자에게는 구청장명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한편 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구민의 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 방법인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김만수기자 <kimms@jeonmae.co.kr>

일본어교실 수강신청 ‘문전성시’

남동구 구월2동자치센터 학구의욕 충족 주민 호응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사무소(동장·이승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난 3일 개강한 일본어 교실에 많은 수강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새봄을 맞이하여 주민의 학구의욕 충족과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일

본인이 직접 강의하는 일본어 교실을 열어 수강신청이 쇄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월2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구월2동에 거주하면서 외국어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인 마에다유미코

(여 30세)씨를 초빙하여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수강생이 20대에서 70대까지 70여명을 넘어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로 인기리에 일본어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강경환기자 ghgang@sidaeilbo.co.kr

음식쓰레기 ‘고민 끝’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공

하루 98톤 처리... 환경오염 방지 큰기대

인천시 남동구가 건립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공식이 25일 남동공단 제 2유수지(140블록) 인근 현지에서 윤태진 남동구청장과 김석우 구의회의장을 비롯 이호웅 국회의원, 신경철 시의회의장, 박동석 정무부시장 등 관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남동구가 총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2년 3월에 착공, 1년만인 이날 완공돼 준공식을 가졌다. 남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구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능력 한계와 침출수로 인한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오는 2005년부터 쪼든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다.

이 시설은 하루평균 98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5천㎡의 시설부지에 ▲전·후처리시설 ▲반입장 ▲전기실 ▲탈취설비 ▲주 발효장 ▲사무실 ▲홍보관 ▲중앙제어실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구는 악취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완전 밀폐된 컨테이너 발효조에 후숙과 발효의 과정을 거치는 독일의 국제특허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미 실용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컨테이너 콤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또 모든 출입구를 슬라이딩식 출입문으로 설치해 차량 출입시에만 문을 개방토록 했고 에어커튼을 부착해 내부와 외부의 공기흐름을 차단했다. 여기에 실내의 기압을 외부의 기압보다 낮게 해 내부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압유지 시스템을 적용했고 혹시 모를 악취의 외부유출에 대비하여 6m 높이의 방풍벽을 설치했다.

이와관련,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완공을 거둔 만큼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명찬기자·chan@kyeongin.com

무인CCTV, 불법주정차 “꼼짝마”

남동구, 15일 구청서 교통종합상황실 개소 전국 ‘최초’... 최소인원 최대효과 기대

인천시 남동구는 15일 구청에서 무인CCTV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통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구에서 운영하게 되는 교통종합상황실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무인CCTV를 이용한 전국 최초의 시설로 상황실에서 원격통제에 의한 계도방송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구는 급속한 차량증가

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의 심화에 따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만수시장, 구월동 우리은행, 간석오거리 주변에 2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 CCTV와 구청내 교통종합상황실을 올 1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CCTV는 355도의 회전과 가시거리가 300m에 달하는 고성능 기능(ZOOM)을 지니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은 교통종합상황실의 차적조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거의 동시에 출력하여 고지할 수 있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교통상황실에서 원격통제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4월까지 시험운영과 주민 홍보기간을 가진 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운영결과에 따라 단속지역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남동=김종면기자 jmkim@kgmaeil.net

박혁구기자 ghpark@kgmaeil.net